

취리(取利)하는 자들을 찾아서

박 성 구(목사, 춘천반석교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마 25:26-30)

들어가는 말

그 주인이 지적한 대로 한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칭찬과 상급은 못 받았을지라도 책망과 책임 추궁은 면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은행을 방문해 보면 돈을 맡기기도 하고 맡겼던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돈을 맡기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맡긴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소액에 대해서는 돈을 맡은 은행이 도산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보장을 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倍)를 남겼다. 배를 남기는 장사가 얼마나 힘든가는 장사를 해보면 안다. 요즘처럼 불황기에는 더욱 더 힘들다. 배를 남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어떤 때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때도 있다. 지속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을 보아도 장사를 잘해 번창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금을 맡길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언제인가 너무 기운이 빠져 탈진 상태에 이를 때가 있어서 건강 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의 목회가 취리하는 자들을 찾아 원금을 맡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흘러간 세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세월이 34년이 지났다. 지나 온 세월을 돌아보니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고픈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도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험담을 하며 배척하는 일을 보았기에 목사가 되고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의 실직(失職)은 국민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경제적 빈곤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참으로 힘들다. 같은 부모로부터 출생했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로 인식은 하지만 정말 형제 자매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생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어려움은 좌절과 의욕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배워 온 천국과 지옥

을 생각하니 자살은 할 수 없었다. 대신 자살은 유보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아보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다가 신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20일 금식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장로회신학교에 진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동기 목사님의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아마도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지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나로서는 살아야 할 의미를 주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나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목회도 벌써 그만 두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도움 때문이다. 밥상공동체와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원금을 맡겨 취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도 아내의 도움 때문이었다.

누가 원금을 맡아 취리하는 자들인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 14:19-21)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복음 전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금은 복음이신 예수님, 이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리는 해석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옷을 입은 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배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욘 3:1-6)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니느웨에 들어갔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요나서를 보면서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을 확대하는 니느웨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이자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나가 사흘을 다니지 아니하고 하루만 다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질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둔 것을 보면 종이 받은 달란트는 그 주인을 만나기까지 계속 효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달란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내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원금으로 내게 있어서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만나 원금을 맡긴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기쁨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허탈한 적도 있었다. 에피소드는 생각하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기술해본다.

첫째 이야기: 교회를 수년 간 출석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있었다.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낸 헌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넘어져서 이가 부러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치과에 데려가서 틀니를 해주고 그 치료비를 1년에 걸쳐 할부로 우리 교회가 부담을 했다. 밥상공동체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식사를 제공했고, 심방도 하고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마음이 허탈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생긴 것을 보면 원금을 맡아 취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이야기: 초등학교 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 여자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한 적이 있다. 동생인 남자 아이는 철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가정이 위탁받아 양육을 하는 중이었다.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여자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위탁을 받고, 남자 아이는 철원에 계신 목사님 가정에서 위탁을 해서 양육하였다. 우리 가정과 철원의 목사님 가정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남매의 부모를 만나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시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였다. 후일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여자 아이를 만나서 기쁨을 재회를 나눈 적이 있었다. 부모는 교회 사찰이 되어 교회에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셋째 이야기: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자 분이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열심히 장사하는 중에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연장 받게 해주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은 분이 대출금의 이자를 내지 않고 있으니 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지서가 은행으로부터 날라 왔다. 책임을 지는 바람에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까지 갚느라 부채를 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전도하는 것 즉 선교사역은 지속할 것이다.

밥상공동체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하에서 생활하다보니 건강이 나빠졌다. 건강의 악화로 지상에 있는 상가 2층을 세(賃)를 얻어 이전을 하게 되었다. 이전을 한 후에 밥상공동체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IMF사



식사 중인 밥상공동체 모습

태로 인해 노숙자와 결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자 강원노회 사회부에서 춘천 지역에 무료급식 사업을 하였다. 날씨가 춥지 않은 계절에는 시내 이 곳 저 곳에서 급식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만 추운 겨울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잠시 쉬게 되었다. 봄이 돌아왔지만 무료급식사업은 지체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반석교회에 들린 한 장로님의 조언과 협력으로 사회 부가 하던 급식 사업을 2층인 반석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토요일 날 급식하는 곳이 없다고 파악되어 토요일에 급식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급식사업을 계속 하게는 되었지만 사람들이 급식 장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춘천성공회에 가서 차로 식사하실 분들을 모셔 왔다. 이렇게 시작된 밥상공동체가 노회 사회부와 춘천시찰회의 후원을 받아 해 오면서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지자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는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밥상공동체 사역은 토요일 하루 점식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요나처럼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달리면서 하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밥상공동체를 10년이 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와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아내의 헌신이 컸다. 토요일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을 거의 자지 못하는 날이 많다. 날을 새우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에 관절염이 생겼다. 지금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인내로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통해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야기

상가 2층으로 이전을 하고나서 전도하러 다녔다. 길거리에 놀고 있는 아동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가르치다보니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었다. 계속해서 사역하다보니 이것이 공부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교회를 이전하고, 지하를 밥상공동체 식당과 공부방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구세군 교회 사관의 도움으로 삼성복지재단과 연결이 되어 지원을 받아 공부방 시설을 하게 되었다. 시설한 후에 시청에

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출발을 하였다. 처음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 하였다. 어떠한 규제도 조건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할 터이니 보조를 받으려면 조건을 갖추라는 요청이 왔다. 요구에 응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진학하여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공부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뿐 아니라 아동센터 종사자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공부방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명지대학교에서 6개월 과정을 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공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지하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인정받기 위해서 볼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건축물 도면도 공부했다. 건축물 도면을 작성해 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허가 받아 조건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공부방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시설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2005년 7월이었다. 그리고 종사자



반석지역아동센터 건물



춘천박물관에서 체험학습 중인 아동들

자격조건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은 2007년 9월에 받았다. 지금은 정년 제도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봉사할 분야가 있으면 봉사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밥상공동체와 지역아동센터

밥상공동체와 지역아동센터의 공통점은 우리 주님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내 자신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해줄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할 수 있는 한 잘 섬겨야 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괴로우면 소홀히 대할 때가 많다. 밥상공동체는 토요일에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다.



발표 중인 아동들

밥상공동체에서 만나는 분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는 아동들은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한 쪽은 과거 지향적인 존재들이고 또 한 쪽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존재들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서 만나는 사람들은 점점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고, 밥상공동체는 점점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한 쪽은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대상이고, 또 한 쪽은 동편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존재이다. 둘 다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비가 필요한 존재이

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

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의 부모가 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가정이다. 지금은 아동센터에 다니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부모와 함께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이 선교사 가정에 주일학교와 교회가 합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일도 하고 있다.

맺는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위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각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왕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 태종에게는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어 자기는 양신(良臣)이 되고 싶지 충신(忠臣)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고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양신(良臣)이나 충신(忠臣)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양신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양신으로 대우하면(마 7:24)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즉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세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충신의 특징은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충신처럼 대하면(마 7:26)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즉 현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내세에는 충신의 말을 듣지 않아 책망 받고 쫓겨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받은 달란트인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고 이자라고 볼 수 있는 회개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는 사역을 지속해야하겠다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世